논 문
CODE 20101

후기구조주의적 사유체계로서의 관계성에 기초한 현대건축공간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eterminate Program based on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Relationship in Post Structuralism

김윤정* / Kim, Yun-Jung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determinacy of the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 based on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ndex of the space planning that the contemporary society demands through analysis of a characteristics of the indeterminate program. As the result, we got a characteristic and a design method of the following indeterminate programs. (1)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ior space programs are in such cases as combined, the continuance, the pile, the juxtaposition, mixing and interference etc. (2)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planning are multiple changes of the space occupation, various sight experiences, folding structure, expansion of flow space, the insertion of a between spaces etc. (3) The characteristic of space design expression is addition of various functions by unification of a structural element and an element of furniture.

키워드 : 비결정적 프로그램, 관계성, 시간, 이벤트, 어포던스
Keywords : Indeterminate Program, Relationship, Time, Event, Afforda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의 우리는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조합되어진 세계에 사는 것이다. 즉, 더 이상 하나의 사유체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복잡하고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건축공간도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문화현상과 놀랍도록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하나의 양식으로 규정되지 않는, 건축가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공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시대의 이들의 작업 방법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우리시대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건축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향후 실현되어질 다양한 공간디자인의 방향을 파악하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의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공간계획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새로운 형태나 이론의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닌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유의성을 밝히고자한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현대건축의 공간계획 방법론으로서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과 표현방법, 특성을 분석하여 현대의 건축공간에서 요구되어지는 공간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 중 관계성의 변화에 주목하여 2장에서는 철학적 기반에서의 관계성 개념의 변화를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고, 사유체계의 중심에 관계성을 두고 있던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관계성 개념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가 현대사회의 관계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관계구조의 특성이 건축공간의 내부구성 논리인 프로그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과 비결정적 관계의 요인을 정리하여 분석의 틀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4장에서는 건축계획의 프로세스에 프로그램이 주요개념으로 도입된 1990년대 이후에 계획되어진 다양한 현대건축공간 중에 프로그램의 비결정성을 적용한 건축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 고찰하여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과 표현방법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2. 공간에서의 관계성 변화에 대한 고찰

2.1. 관계성의 이론적 고찰

(1) 관계의 개념

'관계'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고이다. 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두개 또는 여러 개의 항이 일정하게 모이면 성립되었다가 흩어지면 없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가 먼저 존재하고 개별자들이 그 항들을 채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관계'라는 것이 이 세계를 이루는 더 근원적인 구조이고, 개별자들은 그 관계를 채우는 항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개별자, 개체 중심의 사고이다. 즉 개체들이 더 우선하고 관계라는 것은 그 개체들 사이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에 반해서, 후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를 이루는 더 근본적인 것은 관계들이고, 개별자들은 관계들의 체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 관계들의 체계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20세기 중엽을 장식했던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개념도 여기에 있다.

실존주의는 어떤 개별자, 어떤 개별자의 주체성, 내면, 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것들을 구성해나가는 사유라고 한다면, 구조주의는 관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관계들의 체계를 발견한 것이 구조주의다.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대립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려는 '관계성'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성은 관계들의 체계를 발견한 구조주의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체 중심적 사유와 관계 중심적 사유가 대립해 왔지만 둘 모두 고정적 근원, 원리를 전제한다는 사유라는 점은 같다. 하나는 그 근본적인 실체를 개별자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들의 추상적인 체계로 본다는 것은 다르지만, 이 세계를 '고정된 근원이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는 공통된다.[1] 한편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를 일정 부분 받아드리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후기 구조주의는 관계들의 체계를 강조하고 개별자들은 관계들의 체계 내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와 개별자가 접속과 일탈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파괴해가는 것이라 보았다. 즉 구조주의에서처럼 관계들의 체계를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접속과 일탈,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통해서 관계의 체계가 끝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어지는 과정을 사유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관계의 개념 변화

	실존주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관계개념	개별자, 개체 중심적 사유	관계의 구조 중심적 사유	관계의 구조내 개체 중심적 사유
	개별자에 의해 관계가 생성, 소멸	고정된 관계의 체계내에 개별자가 위치지워짐	개별자에 의해 관계의 체계가 끊임없이 변함

(2) 구조주의 사유체계에서의 관계성

구조주의는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성립되며, 그 배후와 의미의 결정 등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불가시의 객관적 구조'라고 보는 새로운 인식태도로서[2] 합리주의이다. 구조언어학에서는 어떤 개별항도 그것을 둘러싼 관계속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식의 관계성을 강조한다.[3] 그러나 보편성과 필연성의 질서로 각각의 사건이 갖는 차이, 각각의 문화가 갖는 고유함을 환원한다.[4] 이러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관계성의 개념은 인과성과 합리성에 의해 설명되어지며, 필연성과 결정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극단적 합리주의, 결정론적 관점에서 질서정연한 구조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절단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이론적 질서나 구조의 틀로 제한되지 않는 관계들의 복잡한 짜임과 역동적 운동, 산발적 효과들을 놓치고 있다.[5] <표 2>

(2) 후기구조주의 사유체계에서의 관계성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은 복합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후기구조주의도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포착하지만, 구조주의처럼 관계들의 동형성을 찾으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형성으로 귀속되지 않는 '차이'를 사유하려고 한다. 따라서 관계들의 다양성 자체도 조그마한 변형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다양체로 변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는 항상 연기되거나 달라져있다고 하는 '차연(差延)'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단어는 단어들 간의 차이에 따라 정의되고, 그러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내포한다. 또한 데리다는 모든 언어

1)이정우, 철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2)아사다 아키라, 이정우 역,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새길, 1995, pp.16-23

3)이진경, 구조언어학, 한겨레21, 2003.3, 제300호

4)이정우, 시뮬라르크의 시대, 거름, 1999, pp.26-36

5)김상환, 기표의 힘과 실재의 귀환, 철학사상 별책1권 4호,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pp.75-78

는 수식과 수사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6] 은유는 관계에 호소하며, 이러한 관계는 독자가 만드는 것이고 독자에 의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성이라 하는 거미집 모양으로 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망상조직(web)을 일으키면서 다른 기호만을 지시하는 해석의 관생(貫生)[7]이 있어, 어떤 해석도 최종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결정불가능성이 있다. 즉, 해체는 저자보다는 독자에 가치를 두며 은유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으로 향하게 한다. <표 2>

<표 2> 관계 구조의 특성 도출

	구조주의적 관계성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
개념	결정된 합리적 관계구조	결정불가능한 관계구조
특성	인과성, 합리성, 필연성, 결정성, 보편성, 객관성, 고유성	복잡성, 역동성, 모호성, 우연성, 차연성, 은유성, 주관성

2.2. 현대건축공간에 있어서의 관계성

본 절에서는 2.1.절에서 살펴보았던 후기구조주의의 사유체계로서의 관계성이 현대건축공간에 있어서의 관계성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건축비평가인 제프리 키프니스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과 현대건축공간의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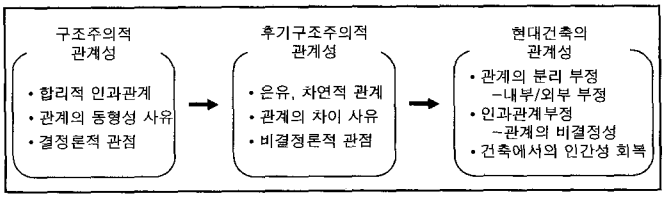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형태와 용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를 기능으로 규정하고, 기능을 건축의 중요한 형성요인으로 규정하였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모색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 중 아키그램은 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결정론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탄력적이고 열린 개념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특히 '형태'와 '재료'가 아닌, '사용', '사건', '이벤트'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건축에 있어 결정불가능성을 수용하여 구조주의적 관계성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로 한정된 영역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크 데리다와 피터 아이젠만의 '탈구축'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건축비평을 전개하여온 제프리 키프니스는 그의 일련의 비평에서 건축에서의 결정불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하고, 현대 건축의 특성으로 관계의 분리불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결정불가능성의 경계로서 '세퍼라트릭스(Separatrix)'를 제시하여 건축의 모순된 복수의 관계성을 변용시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8] 세퍼라트릭스는 비율과 분수, 동시성, 선택성, 대립성, 그리고 모든 구조화되어진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탈구축은 이러한 세퍼라트릭스가 결정을 가능하게하기위한 억압된 결정불가능성에 대한 존중을 부활시킴으로 달성가능하다고 키프니스는 역설하고 있다.[9] 또한, '데리다의 탈구축-현대사상의 모험가들'에서 저자 타카하시 테츠야는 세퍼라트릭스에서 보여지는 '주/객' 등의 이항 관계구조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제 개념의 계층 질서적 이항구조(二項構造)를 해체하는 것이 데리다의 탈구축이라 정의하고 있다.[10] 즉, 기존의 형이상학적 관계구조를 유지하는 경계, 즉, 세퍼라트릭스가 엄밀하게는 결정불가능하다는 것을 폭로함으로 기성의 질서체계와는 별개의 관계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그 어프로치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는 엘크로키에 기재한 에세이에서 최근의 건축의 다양한 현상들의 단면을 5가지의 대극되는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11] 여기서 그는 베르나르 츄미나 이토 토요 등의 건축가를 분석하면서 시간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작위적인 우연성 속에 인과관계에 대한 가능성의 원인조차 분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이벤트 등을 비결정성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여 관계의 비결정성을 해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절에서 살펴보았던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사유에서의 관계성 개념의 변화는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와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표 3>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과 현대건축공간의 관계성



(2)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의 요인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대건축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의 비결정성에는 '건축의 영역에 인간성을 다시 회복해야한다'는 신념이 깔려있다. 다시 말해, 작가-작품-독자의 관계론적 층위에서 건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독자(사용자)가 비결정성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

6)마단시럽외, 임헌규 역, 데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9,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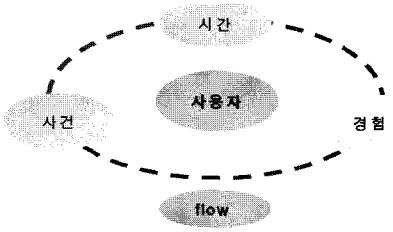
7)관생(貫生,proliferation) - 꽃 및 대부분의 꽃차례는 보통 줄기의 끝이 성장을 멈춘 유한한 구조인데, 어떤 자극에 의하여 끝부분에 잠재하고 있던 생장점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부정아(不定芽)가 생기면서 다시 줄기가 자라 꽃차례 또는 꽃이 반복하여 피거나 가지로 되돌아가는 현상.

8)Jeffrey Kipnis,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 pp.950-958

9)Jeffrey Kipnis, Twisting the Separatrix,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MIT press, 1998. 재인용 Tohru Horiguchi, Boundary Articulation within the discourse of Undecidability, J. Archit. Plann., AIJ, NO.560, Oct., 2002, p.292

10)高橋哲哉, デリダ-脱構築, 現代思想の冒險家たち, 講談社, 1998, p.311

11)Alejandro Zaera-Polo, A world of full of holrs, El Croquis 53+97, 1998, pp.308-321



<그림 1> 관계론적 층위에서의 비결정성의 요인

이다. 즉, 공간에서 사용자 행위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결정된 것의 외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론적 층위에서의 비결정성은 사용자 개개인의 시간, 사건, 경험에 따라 건축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의 질과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공간 관계의 비결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결정적 요인을 앞에서 도출한 후기 구조주의적 관계성의 특성과 관계 지어봄으로서 비결정적 관계요인으로서의 시간, 사건, 경험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표 4>

<표 4> 비결정적 관계의 요소

후기구조주의적 관계구조의 특성		비결정적 관계요인
차 연 성	연기, 지연의 의미 내포 다른 단어에 의한 불안정한 의미변화	시 간
역 동 성	구조의 논리적 형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 기표와 기의의 불안정한 사건적 결합	
우 연 성	사건의 계열화의 불확정성	사 건
주 관 성	독자의 우발적 사건이나 경험에 의한 의미변화	
은 유 성	의미와 저자의 의도 사이의 비형식적 사건 독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한 해석의 유도	
복 잡 성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 -무한 확장 가능한 망상 조직의 텍스트적 관계 해독과정의 시간서와 모호한 구조의 결정 불가능성	경 험
모 호 성		

차연성은 차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연기 또는 지연이라는 의미도 포함한 개념으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단어는 그것이 아닌 다른 단어들에 의해 불안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사건과 연결되어 질 수 있다. 역동성은 차연성과 연관되어지는 개념으로 순수한 구조의 논리적 형태가 아닌 시간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기표와 기의의 불안정한 사건적 결합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연성은 구조의 차이에 의한 의미의 생성과 변화가 어떠한 사건과 계열화 되는지에 따른 불확정성에 대한 개념이며, 주관성은 저자보다는 독자에 가치를 두는 데리다의 개념으로 독자의 우발적 사건이나 경험에 의한 의미의 변화를 말한다. 은유성은 언어가 단순히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형성하며,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는 것으로 의미와 저자의 의도 사이의 불일치와 부조화 등의 비형식적 사건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복잡성과 모호성은 데리다가 설명한 상호텍스트성에서 나온 개념으로 텍스트가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상호 교차적이며 거미집 모양으로 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망상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어떤 해석도 최종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텍스트를 해독하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어떤 자극에 의한 모호한 구조의 결정불가능성을 풀어헤친다는 개념으로 시간과 사건에 각각 연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후기구조주의의 관계성은 현대건축공간의 비결정성을 구성하는 시간, 사건, 경험과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그 구조의 내부 구성논리인 프로그램에 의해 나타나며, 시간, 사건, 경험은 현대건축공간의 비결정적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관계의 비결정적 요인을 수용한 프로그램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현대건축공간의 관계성에 기초한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과 형성요인

3.1. 건축공간 프로그램의 의미변화

건축에서의 프로그램은 18세기 중반에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성된 병원, 감옥, 극장 등의 공공시설들 위한 세부 목록을 만들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프로그램은 건축이 수용해야할 '기능들의 목록'은 물론이고 각 기능들을 수용할 '개략적인 구성'까지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기도 했다.[12] 프로그램은 19세기 이전에는 건축주에 의해 주어지던 조건으로 간주되었지만 20세기초 줄리앙 구아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그는 '건축의 이론과 요소'에서 '건축 프로그램이란 필요한 유용요소의 목록이다. 건축 프로그램은 요소간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조합이나 비율은 시사하지 않는다.'[13]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시대의 프로그램은 시설에 맞는 '기능의 유형'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고 건축가의 프로그램 해석은 각 건물의 유형화의 주요 인자로 부상하면서 '기능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기능주의의 프로그램이 불변한다는 전체 하에서 형태와 프로그램이 1:1로 대응하도록 하는 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건축의 극단적인 기능주의에 반발하여, 건축에서 프로그램을 제외시키고 형태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렘 콜하스와 베르나르 츄미 같은 건축가들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들의 설계에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은 다시 건축가의 몫으로 돌아왔다. 렘 콜하스와 츄미는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

12)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시공문화사, 2005,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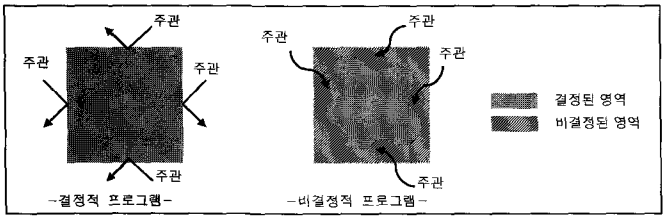
13)J. Guadet, Elements et theorie de l'architecture. Paris, 1909, 재인용 Beranrd Tschumi, 건축과 해체, 류호창·서정연 공역, 2003, p.110

던 포스트모더니즘의 고전적 형상, 의미로의 회귀를 비판하며, 기능주의에서의 문제가 '기능과 형태의 관계성'이었음을 지적하고 바로 그 점을 토대로 건축을 시작한다. 이들은 형태와 기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동시에 프로그램이 이전의 고정적 의미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콜하스와 츄미의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과 그것이 건축화된 결과물은 다시 건축공간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건축 설계 방법에 프로그램 해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3.2. 현대건축공간에 있어서의 비결정적 프로그램

(1)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요인들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정한다. 렘 콜하스는 형태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과 인간의 행위는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건축을 거부하였다.[14] 이는 공간의 의미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의 인간행위와 관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얻어진다는 후기구조주의적 관계성의 개념과 연관되어진다. 즉, 각각의 공간 프로그램은 공간의 사용자인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변화되어질 수 있으며, 건축가는 프로세스 단계에서 비결정성의 요인을 수용한 공간을 계획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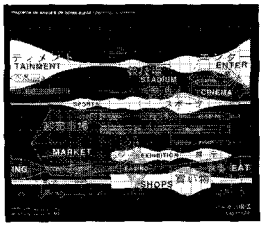


<그림 2>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개념 다이어그램

(2) 비결정성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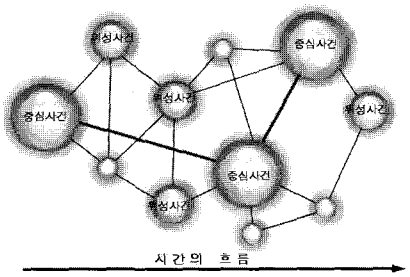
1) 시간의 수용

오늘날의 건축공간은 도시 내 사람들의 활동과 흐름,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시간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새로운 명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행위의 변화와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된 동시성, 사람, 생각, 사물의 이동과 행위의 중첩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 점유와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행위의 변화는 공간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하며 각 공간은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공간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사용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은 특정의 공간이 공시적으로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거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하나의 공간 구조로 작용하다가 부분의 집합으로 공간 사용의 유형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림 3>



<그림 3> 렘 콜하스의 요코하마 도시계획에서의 시간-프로그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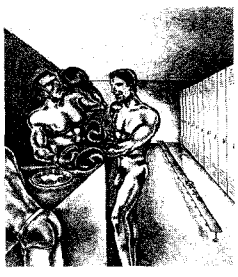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또 다른 현상은 공간 속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보고, 지각하고, 기억하는 것 등 나누어진 장면의 연속(Sequence)으로 보는 것이다. 주체와 객체 사이의, 형상과 배경 사이의, 관찰자와 이벤트 사이의 연속성이라는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장에 삽입되는 시간의 차원이다.[15] 공간에서 보여지는 사건의 중심 또는 위성사건의 위계는 특정한 시퀀스에 의해 좌우되며, 사건 자체는 스스로 변형을 가질 수 없다. 즉, 공간의 자극은 관찰자의 운동에 의해 전개되며 그 인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간의 경험은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비결정적 시퀀스의 배열

2) 사건의 수용

프로그램에서의 사건의 수용은 베르나르 츄미가 말한 이벤트 프로그램이다. 이벤트는 근대 건축의 영역에서는 배제된 인간 생활의 부분에 주목한 것이며, 인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기계나 이미지가 아닌 행위를 주요한 주제로 부각하여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해석하려는 것이다.렘 콜하스는 '광기의 뉴욕'에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동원하여 가능한 모든 층위에서 인간 활동을 배열함으로써 건축의 프로그램이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며, <그림 5>은 초현실적인 프로그램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들의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였다.[16] 이벤트 프로그램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영역인 공간, 운동, 이벤트의 치환작용을 통해 새롭고 예상치 못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구조의 빈틈새 속을 움직여 감으로써 만들어지는 면과 위치가 갖는 기능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발견적 교수법과 밀접



<그림 5> 다운타운 운동 클럽, 'n층에서 발가벗은 채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굴을 먹는것....'
- 광기의 뉴욕, 렘 콜하스

14)한선정, '해체주의 이후' 아방가르드 건축의 특성과 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9, pp.32-35

15)Sanford Kwinter,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 p.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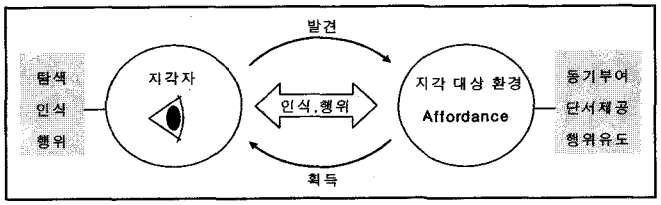
16)Rem Koolhaas, 광기의 뉴욕, 김원갑 편저, 세진사, 2001, pp.181-190

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벤트의 속성은 순간에 존재하는 독립체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화가능성을 지니며, 오브제와 사람, 이벤트 간의 치환작용을 통한 상호 호환성을 갖는다.[17] 츄미는 프로그램 개념을 건축 공간에 생성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인 사건들이 조합된 것으로 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파편화된 이벤트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건축가는 예측가능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배열하거나 조합하는 작업으로써 건축 공간에 비일상적이거나 예측불가능한 이벤트를 생성시켜야 함을 암시한다.[18]

3) 경험의수용

사용자의 경험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은 어포던스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어포던스(affordance)는 미국의 생태심리학자 제임스 깁슨이 만든 용어로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성질'이며 '동물과의 관계로서 정의되는 환경의 성질'이라고 정의 하였다. 깁슨은 정보는 이미 우리들의 주변에 충만해 있고 환경에는 그 자체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정보가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머릿속에서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보를 직접 자연스럽게 입수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19] 또한 깁슨은 "상응적 디자인(Interaction Design)의 틀 안에서의 어포던스란 어떤 물체의 형태가 사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제공하고, 허용하는 사용상의 유용성이다."[20] 라고 하였다. 그는 어떤 물체가 사용자(행위자)에게 그 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행위들을 가능케 하는, 물체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물리적인 관계로서 어포던스를 이해하고 있다. 즉 어포던스의 공간개념은 사용자 중심의 참여성과 행위 유발성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가구 등의 어트랙터의 배치가 행위를 규정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21] 또한 사용자에게 구조를 개조하지 않고도 많은 행위들을 지원하고, 또한 개개의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로 인식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행위를 유발시키려면 어포던스의 성질이 미결정되어야 한다. 신체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시각정보를 어떻게 지각하며, 어떻게 지각과 운동의 결합이 성립하느냐이다. 공간을 이동하면서 갖는 사용자와 오브제의 관계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변화한다. 환경에서 어포드된 정보가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에 대응한 운동의 조정으로 사용자와 환경 사이의 동적 관계성을 지각하면서 이루어진다.[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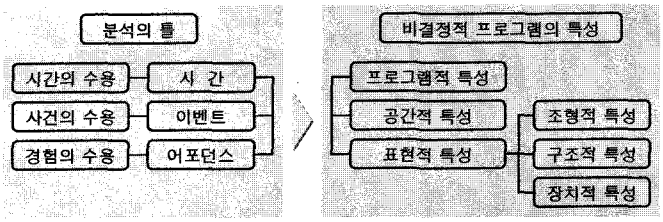


<그림 6> 어포던스의 개념도

4.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분석

4.1.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분석 방법

비결정적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틀로서 앞 장에서 살펴본 비결정성의 요인을 토대로 시간, 사건, 경험을 각각 시간, 이벤트, 어포던스로 대체하여 분석의 틀로 삼고, 이 분석의 틀을 통해서 다음 절에서 대표되는 사례분석으로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은 프로그램적 특성, 공간적 특성, 표현적 특성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표현적 특성은 다시 조형적, 구조적, 장치적 특성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7>



<그림 7>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분석 체계도

4.2.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분석

(1)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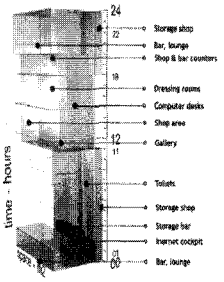
FOA의 <요코하마 국제 여객 터미널>은 국제해상 교통시설, 도시 공공시설, 도시공원의 프로그램을 중첩하여 연속시킴으로 국내선 이용과 국제선 이용의 양과 스케줄에 따라 공간의 용도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부여하였다. 즉 folding구조를 통해 내부공간, 외피, 구조가 연속되어 통합되므로써 경계의 이동이 가능하여, 어떠한 가상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23] 또한 옥상 정원은 도시민을 위한 공원, 전망대, 송별의 장소등의 프로그램이 중첩될 수 있도록 <그림 8>에서 볼 수 있

<그림 8> folding구조의 요코하마 국제 여객 터미널 / FOA

17)Berarnd Tschumi, Madness and the Combinative, 1994, p.181
18)Berarnd Tschumi, Event - Cities 2,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2000, p.13
19)佐々正人, 知性はとこに生まれるか, ダーウィンとアフォーダンス, 講談社現代新書, 2000, pp.62-63
20)J.J.Gibson,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79, p.127
21)伊東豊雄, 建築:非線型の出來事, 彰國社, 2002, pp.176-179
22)안우진, 건축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시퀀스, 경상대 박론, 2003, pp.64-66
23)FOA, Phylogenesis, Actar, 2003, pp.227-237

듯이 랜드 스케이프를 접목시킨, 표면 자체가 접히거나 구부러져서 새로운 요소와 구조가 주입된 연속된 공간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 스튜디오의 <Skim.com계획>은 <그림 9>와 같은 24시간 활동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통한 분석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혼성시켜 활동의 동시성, 기반시설의 공유, 그리고 가구와 경계요소의 가변적 조합과 이동을 통해 동일한 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간은 낮 시간에는 구매 활동에 집중되는 반면, 저녁에는 사회적 활동에 할애되고, 커뮤니케이션 시설은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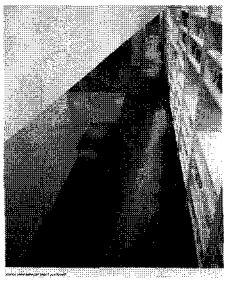


<그림 9> 24시간 프로그램 지도/ UN Studio

렘 콜하스의 <시애틀 중앙도서관>[25]은 연속적인 공간구성과 애매한 층의 구분이 수직적인 연속성을 갖으며, 공간의 시퀀스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준다. 기존의 층들의 중첩을 근본적으로 변형하여, 계단, 램프, 에스컬레이터등의 다양한 수직동선의 겹침을 통해 연속적인 시선의 흐름과 겹쳐진 공간을 통한 역동적인 공간 체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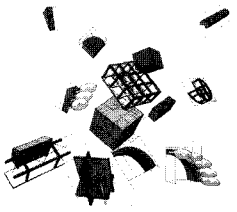
<그림 10> 시애틀도서관의 북스파이럴 내부, 시각의 역동적 연속성 / 렘 콜하스

SHoP의 <한길 북하우스>는 자연과 어우러져 독서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위해 외부공간부터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연속해서 배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시각체험을 구성하였다. 비틀린면의 연속은 옥상의 벤치로 연속되어지며 내부공간은 비틀린 축과 램프로 인해 동선의 유동적인 통로가 만들어지고 흐름이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부의 풍경까지 연속하여 경험하게 된다. <그림 11>


<그림 11> 한길 북하우스의 비틀린 축에 의한 연속된 시퀀스 / SHoP

(2) 이벤트

베르나르 츄미는 <라 빌레뜨 공원, 1982-1998>에서 행위를 주제로 부각시키면서 해체되어 분리된 행위 즉, 이벤트를 구체화 시키며 '점적인 행위', '선적인 행위' 및 '면적인 행위'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중첩하여 이벤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26] '점들'은 그리드 패턴 위에 배열된 폴리로 나타나고, 일련의 통로들과 운하들은 '선들'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또 평탄한 잔디의 확장은 구성에 있어서 '면들'을 이룬다. 따라서 라 빌레뜨 공원의 구성은 단순한 형태적 유희가 아니라 3개의 자율적인 추상적 시스템과 포인트 그리드라는 격자의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의 요소들을 병치한 결과이다.[27] 특히, 하이퍼텍스트적[28]으로 해체된 폴리는 공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수용하며, 자유로운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12>


<그림 12> 해체된 폴리 / 베르나르 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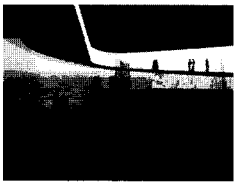
세지마 카즈요의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도심에 위치한 사이트의 특성을 살려 모든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원형구조로 계획되었으며 이 원형구조는 건물의 전면과 후면이라는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 원형의 건물은 건물의 뒤편에 위치한 숲과 일본전통 찻집, 작은 운하 등 다양한 풍경을 건축공간의 내, 외부에 투영시켜 연속되는 공간들이 중첩되도록 구성되어져있다.[29] 이 미술관은 시민들의 교류존과 미술관존의 두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하나는 미술관 외주부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원형의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교류존이고, 또 하나는 중앙부의 다양한 사이즈의 전시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는 미술관존이다. 각 전시실은 복수의 이동공간으로 종과 횡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자유로운 동선계획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동공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접근을 통하여 다채로운 공간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 투명한 이동공간을 통해 미술관존으로부터 교류존에서의 행위들이 비추어지며, 교류존에서도 미술관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이 투영된다.[30] 또한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보이는 투명한 복도는 단순한 평면과는 다르게 복잡한 내부공간에서 관람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으며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새롭고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림 13> 네 개의 중정은 교류존과 미술관존 간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공간으로 시각적 연결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미술관 깊숙한 곳까지 자연광을 조달하며, 식재된 다양한 수목은

<그림 13>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이동공간

24)UN Studio, Love it. Live it, DAMDI, 2004, p.138
25)건축문화, 2005.09, pp.94-129
26)ibid., p.57
27)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p.80
28)Beranrd Tschumi, 건축과 해체, 류호창·서정연 공역, 2003, pp.174-176
29)CRISTINA DIAZ MORENO & EFREN GARCIA GRINDA, LIQUID PLAYGROUNDS, El Croquis 121/122, pp.15-18
30)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SANAA WORKS1995-2003, TOTO, 2004

외부의 자연과 일체화된 공간을 창출하므로 미술관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베르나르 츄미의 <상파울로 현대 미술관>은 예술과 도시의 경험들이 서로 얽히게 되면서 미술과 도시를 상호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의 재해석을 갤러리 경사로로 나타내었고, 그 갤러리 경사로를 따른 움직임은 파사드의 유리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인지하게 된다. 동선은 경사로를 따라 중앙 갤러리를 중심으로 아래로 이어지며 갤러리들을 통과하며 걸어 내려가게 되어있다.[31] <그림 14> 이 현대 미술관은 경사로가 확장되어 갤러리에 전시되는 작품과 거리의 문화작품들 간의 상호 정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즉, 경사로라는 통로의 개념을 확장시켜 소장품과 관람자, 관람자와 도시 사이의 물리적 중재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은 사용자의 움직임과 이벤트 경험에 대한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은 통로 공간의 구축을 통해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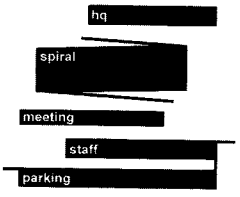


<그림 14> 상파울로 현대미술관의 동선에 의한 갤러리 경사로의 구성과 투명성에 의한 도시와 건축의 반응 / 베르나르 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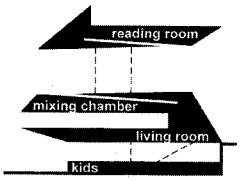
<라 프레노아, 1994-1997>는 사이공간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작품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위에 새로운 지붕을 씌워서 생긴 사이공간에 기존의 건물 매스들을 연결하는 운동장치가 관통하고 있다. 그 사이 공간은 트러스의 비물질화된 구조와 결합하여 마치 이벤트를 상연하는 무대의 가능성을 제안[32]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거대한 지붕은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공간적 상황을 만들고, 도입된 통로를 통한 이동을 발생시켜 공간의 관계성을 활성화 하기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그림 15>

<그림 15> 라 프레노아의 사이공간 / 베르나르 츄미

렘 콜하스의 <시애틀 중앙도서관>[33]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그림 16>과 같은 5개의 고정공간을 나누고 그것들이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림 17>과 같이 4개의 가변공간을 혼입시켰다. 이러한 가변공간의 애매한 특성에 의한 공간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강렬한 색채와 수퍼그래픽의 요소를 도입하였다. 각 플랫폼들 간의 사이공간은 도서관 업무, 상호 의사소통과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부여하고, 여러 기능을 수용하는 오픈 된 공간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관계를 유도하였고, 내부 직원과 이용자들이 최대한 상호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위해 믹싱챔버를 구성하여, 공간과 이용자들이 서로 얽히며 계속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림 16> 5개의 고정공간-Plat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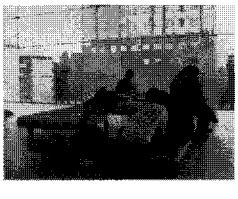
<그림 17> 4개의 가변공간-In Betweens

(3) 어포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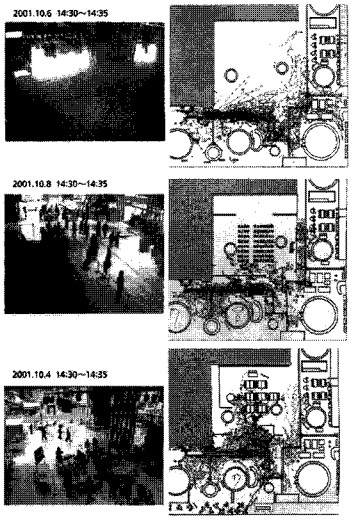
여러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록본기 힐스 가로의 도시 이용자를 위한 설치물은 기존의 가로벤치의 개념을 넘어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혼입하고 있다. 고정된 벤치의 형태에서 벗어나 유기적 형태와 통합된 구조로 도시 가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험을 창출하고 지원하여 가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그림 18>

<그림 18> 록본기 힐의 가로 설치물

이토도요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오브제들 역시 유연한 형태의 구조로 다양한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19> 이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장치를 통해 개인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상징성으로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일종의 조건반사적 공간체험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34] 또한, 어포드된 정보가 달라짐에 따라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위해서 공간을 분할하는 구조적 경계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토 토요 자신은 그 자연스러움은 단지 플렉시블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변화 자신이 미디어 테크의 환경 특성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메타레벨의 어트랙터가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류는 움직임 중의 일면이며, 흐름의 연속으로 어포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행위이다.[35]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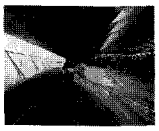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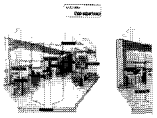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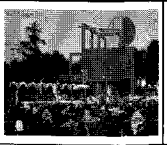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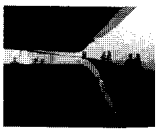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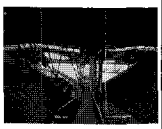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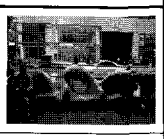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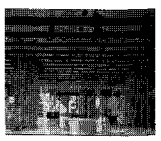
<그림 19> 센다이 미디어테크 내부 오브제 / Toyo Ito



<그림 20> 센다이 미디어테크의 유동패턴에 의한 어포던스의 변화

31)윤정원, '흐름' 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 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4, pp.41-42
32)Berarnd Tschumi, Event - Cities
33)건축문화, 2005.09, pp.94-129
34)이미경, 테마파크 환경연출기법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
35)伊東豊雄, 建築:非線型の出來事, 彰國社, 2002, pp.176-179

<표 5>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비결정적 요소	프로젝트 / 건축가	주요 이미지	프로그램적 특성	공간적 특성		표현적 특성		
						조형적 특성	구조적 특성	장치적 특성
비결정론적 프로그램 — 시간	요코하마 국제 여객 터미널 /FOA		중첩 연속	공간 점유의 다변화	동일한 공간이 공시적으로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거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사용의 유형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	랜드스케이프를 접목시킨 연속된 판에 의한 비선형	folding에 의해 내부 공간, 구조, 외피가 연속되어 통합되는 구조	전체공간이 물리적 경계 없이 주름진 경사면을 통해 연속되어 공간 구성의 변화 가능
	Skim.com계획 /UN Studio		혼성			구조체와 가구가 일체화된 개방형 공간	플러그인 모듈의 구조적. 장치적 요소가 혼합된 가변구조	경계요소와 가구의 가변적 조합과 경계의 이동에 의한 다목적 공간 활용
	시애들 중앙도서관 /Rem Koolhaas		분리 혼입	연속적 시각 체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는 연속적이다. 그리고 공간 속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보고 지각하고, 기억하는 하는 것은 나누어진 장면의 시퀀스를 기억하는 것이다.	수직 동선이 만들어내는 사선의 레이어의 겹침에 의한 역동적 형태	변형된 층의 중첩에 의한 애매한 층들의 삽입구조	계단, 램프, 에스컬레이터등의 다양한 수직 동선의 겹침에 의한 다양하고 연속된 시선의 흐름과 교차
	한길 북하우스 /SHoP		연속			비틀린 면에 의한 외피와 가구적 요소의 연속성	내부구조의 비틀린 축의 중첩	오픈 된 홀과 외부까지 연속되는 경사로의 연계와 이동의 교차점에서의 내외부의 연속된 시퀀스 연출
이벤트	라 빌레트 공원 /Beranrd Tschumi		중첩	자유로운 흐름의 구축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하며 건축공간에 비일상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생성시킨다.	그리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선, 면적 요소의 중첩	하이퍼텍스트적 해체와 통합에 의한 폴리구조	폴리에 의한 다양한 시각적 중첩과 자유로운 흐름과 행위의 구축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Kazuyo Sejima		분리 병치	동선 공간의 확장	사용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선공간의 확장으로 자연스러운 이벤트가 생성된다. 공간과 움직임, 이벤트의 상호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 장으로서 다목적의 공용공간으로 형성되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해석되어진다.	원형의 평면구성과 나열식 내부공간 배치에 의한 공간위계의 해체	나열식 내부구조에 의한 면적 중첩과 종, 횡의 이동공간과 중정에 의한 내외부의 통합	투명한 이동공간에 의한 다양한 시퀀스 연출과 중첩된 면을 통하여 공간과 행위, 시각적 다변화를 활성화
	상파울로 현대미술관 /Beranrd Tschumi		병치			투명한 외피에 의해 연출되는 연속적 선형	램프 시스템에 의한 내외부의 통합과 연계	경사로가 확장된 내부공간과 투명한 외피에 의한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내외부의 관계가 교환되어 새로운 이벤트 생성
	라 프레노아 /Beranrd Tschumi		혼성	사이 공간의 삽입	프로그램들을 그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병치함으로써 '사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이 공간은 최대한의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와 과거의 이질적인 공간의 겹침과 조화	기존의 건물을 통합하기 위한 구조의 겹침과 연결	통행로와 플랫폼 시스템의 구조
	시애들 중앙도서관 /Rem Koolhaas		분리 혼입			보이드와 투명함에 의한 공간의 연속된 교차	고정공간(platform)과 가변공간(in-between)의 중첩구조	비물질적 경계 표현으로 강렬한 색채와 수퍼그래픽을 도입하여 공간인지도를 높이고 외부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 생성
어포던스	록본기 힐스 가로벤치 /Various Architect		혼성	다양한 정보의 혼입	사용자에게 구조를 개조하지 않고도 많은 행위들을 지원하고, 또한 개개의 사용자와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가구등의 장치적 요소에 다양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유기적 형태	이음매 없는 통합된 구조	벤치가 갖는 등받이, 받침, 다리등의 기존의 형태를 벗어난 구조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의 모호함
	센다이 미디어테크 /Toyo Ito		혼성			연속적 선형	일체화 구조	다양한 높이의 비정형적 오브제
	센다이 미디어테크 /Toyo Ito		간섭	사용자와 환경의 동적관계	환경에서 어포드된 정보가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환경은 소프트웨어가 장소에 주입되어짐에 따라 크게 변화하기도 한다.	비선형적 튜브에 의한 보이드 공간	튜브와 슬래브에 의한 물리적 경계의 해체	가구적 장치 등의 다양한 어트랙터에 의한 직감적 환경정보 제공

은 1층 로비공간의 어떤 날의 5분간의 유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로비의 프로그램이 변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유동 패턴이 변화하며 빠른 속도의 패턴 주위에 거품처럼 나타나는 늦은 패턴의 대비가 보인다. 이러한 거품의 형성은 커다란 동선의 방향이 전환되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튜브나 어트랙터가 되는 가구적 장치 근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렇듯 이벤트에 의해서 사용자의 유동 패턴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어포던스의 지각정보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

앞 절에서는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요인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상기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내부공간프로그램의 특성 ,공간적 특성, 표현적 특성으로 나누어 <표 5>과 같이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한 이유는 건축공간의 비결정성이 프로그램화되어 공간으로 계획되어지고 공간은 다시 공간을 구성하는 구체적 표현방법에 의해 구현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관계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이론적 배경으로 철학에서 '관계'를 사유의 중심으로 두었던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를 비교 고찰하였다. 여기서 현대사회의 사유체계라 할 수 있는 후기구조주의의 관계성의 주요 개념으로 관계의 결정불가능성을 도출하였으며, 그것이 현대건축공간의 관계구조의 특성임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현대 건축공간의 특성이 건축공간의 내부구성논리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프로그램에서 비결정성의 요인인 시간, 사건, 경험을 수용하는 비결정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특성을 <표 4>와 같이 프로그램적 특성, 공간적 특성, 표현적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현대건축공간의 관계성 표현으로서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부공간프로그램의 특성으로는 비결정적 요인인 시간, 이벤트, 어포던스의 요인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분해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이 혼성, 연속, 중첩, 병치, 혼입, 간섭 등의 조합 방법에 따라 단독 또는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진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기능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 선형적인 인과관계와 결정성을 부정하고 프로그램들 사이의 예기치 못한 조합과 부조합을 만들어 유동적이고 비선형적인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추구한다.

(2) 공간특성은 시간에 따른 공간 프로그램 점유의 다변화와 다양한 경로를 병치시킴으로 체험자의 임의적 방향성에 의한 비결정적인 연속적 시각체험으로 시간을 수용한다. 또한 위계없는 개체의 상정으로 사용자에 의한 자유로운 흐름을 구축하고, 동선공간을 확장하여 공간의 연결에 체험적 요소를 개입시키며, 사이공간의 삽입으로 위계를 약화하고 다양성을 제공하여 공간에서 사건에 의한 비결정적 관계를 활성화 시킨다. 또한, 환경적 요소에 다양한 정보를 혼입하고, 사용자와 환경의 동적 관계를 통해서 많은 어포던스를 내포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통한 다양한 공간과의 관계형성이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3) 표현특성은 대체적으로 비선형적, 연속적, 역동적, 유기적, 투명성 등의 조형적 특성을 보였으며, folding이나 일체화, 중첩 등의 구조적 형식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으며, 장치적 특성으로는 경계요소와 가구의 가변적 조합, 구조적 요소와 가구적 요소의 연속적 혼합 등 공간과 장치의 일체화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경향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보이드나 동선 등에 의한 연속성이나 유기적, 비선형적 형태는 미학적인 조형의지라기 보다는 내부 공간을 통합하거나, 이질적인 공간 활동을 동시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들간의 새로운 관계구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1. 이정우, 철학이란 무엇인가,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2. 아사다 아키라, 이정우 역,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새길, 1995
3. 이진경, 구조언어학, 한겨레21, 2003.3, 제300호
4. 이정우, 시뮬라르크의 시대, 거름, 1999
5. 김상환, 기표의 힘과 실재의 귀환, 철학사상 별책1권, 철학사상연구소
6. 마단시럽 외, 임헌규 역, 데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9
7. 이냐시 데 솔라 모랄레스, 차이들-현대건축의 지형들, 이종건 역, 시공문화사, 2004
8. Robert Venturi 저, 임창복 역, 建築의 複合性과 對立性, 기문당, 2000
9.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시공문화사, 2005
10.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11. K. Michael Hays 편,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2003
12. 벤 반 버클, Love it. Live it, DAMDI, 2004
13. Beranrd Tschumi, 건축과 해체, 류호창・서정연 공역, 시+공, 2003
14. Rem Koolhass, 광기의 뉴욕, 김원갑 편저, 세진사, 2001
15. El Croquis 53+97, El Croquis S.L, 1998
16. El Croquis 121/122, El Croquis S.L, 2004
17.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 SANAA WORKS1995-2003, TOTO, 2004
18. FOA, Phylogenesis, Actar, 2003
19. 伊東豊建雄築, :非線型の出來事, smtからユーロへ, 彰國社, 2002
20. 천의영, 1980年代 中期 以後 現代建築의 關係性의 變化에 대한 硏究, 서울대 박론, 1998
21.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잠유성의 재해석과 그 적용, 중앙대 박론, 2004
22. 안우진, 건축의 장소성을 체험하는 공간시퀀스, 경상대 박론, 2003
23. 高橋哲哉, デリダ-脫構築, 現代思想の冒險家たち, 第28卷, 講談社, 1998

<접수 : 2005. 10. 31>